

CASA

SEPTEMBER 2009

Romanticism Secret

매력적인 코드로 재구성한
로맨티시즘에 대한 단상

東.洋.畫.家

동양의 담백한 정서를 담은
백의 공간

Tiny but Giant Houses

미래와 환경, 인간의 감성을 담은 세계의 스몰 하우스

Sleep with a Good Mattress & Bedding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매트리스와 베딩의 모든 것

Memorable Presents

명사들이 추천하는 실속과 감동의 한가위 선물 리스트

가을에 걸기 좋은 '길'

산, 바다, 하늘, 바람과 하나되는 도보 여행

SPECIAL

Fall in Fabric

스타일리시한 가을 공간을 위한 패브릭 워크.
F/W 트렌드, 패브릭 디자이너의 감성 공간&숍 가이드



유기적 모더니즘의 대표 디자이너 최병훈 아트 퍼니처는 나의 숙명이다

심플하고 유기적인 가구 디자인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디자이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이자 비트라가 유일하게 소장한 한국 작품의 주인공.
최병훈 디자이너에게 듣는 가구 이야기.

까사스쿨 매디치클래스를 <까사리빙>에서 만나세요

매디치 클래스는 새로운 리빙 트렌드와 가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전문 교육 기관, 까사 스쿨이 준비하는 품격 높은 교양 강좌입니다. 2009년은 '디자인'을 주제로 사진, 가구, 인테리어, 건축, 공간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문의 02-3442-1504, www.casaschool.com

멀리 임진강이 흐르는 경기도 파주의 아틀리에. 이곳은 디자이너 최병훈의 평화로운 작업 공간이다. 'afterimage' 시리즈 작품들 중 몇 개는 옷칠이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몇 가지는 아틀리에 2층을 장식하고 있다. 단순한 형태와 단아한 디자인은 작품의 주인이 동양적인 정서를 간직한 한국인임을 알려주는 듯하다.

돌과 나무라는 자연 소재를 주로 사용하는 최병훈의 작품들. 장식을 배제하고 물성을 고스란히 살려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그의 가구들은 '유기적 모더니즘'을 표현하고 있다. 직각으로 몇 번 구부린 나무판으로 의자를 만들고 하부에 둥글게 다듬은 돌을 놓거나, 테이블 아래를 둥그런 형태로 두고 돌과 나무로 다리를 만들었다. 가구로서의 역할은 물론 디자인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했기에 그의 작품은 '아트 퍼니처'로 불린다.

"가구라는 매체가 나의 아트 세계를 표현하기 가장 적절한 소재였어요. 오랫동안 꾸준히 진행해온 작업이지요. 공예가 아닌 아트 워크로서의 가구.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디자인과 아트로 옮겨가면서 저의 작품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지, 저는 매한가지 일을 해온 거예요."

21세기는 아트와 디자인의 시대. 이제는 서로 다른 영역이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대세다. 이런 때에 '아트 퍼니처'를 선보이는 그의 작품들이 각광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동양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의 작품은 파리에 있는 그의 전속 갤러리인 다운타운(Downtown)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다섯 번에 걸친 개인전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 '동양적이면서 데커레이션이 없는 미니멀한 디자인, 그러면서도 특별한 메시지가 담긴 선'을 가진 작품이라는 평가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메시지는 그들의 미적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의 작업은 쉽지 않다. 스케일이 웅장하고 무게감이 있는 소재들을 사용하기에 더욱 그렇다. 신소재에 대량생산을 지향할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자신만의 표현을 하기로 했다. 천연 목재와 돌을 사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론 아라드나 자하 하디드가 사용하는 소재를 똑같이 사용한다면 차별성이 없다는 것도 그의 생각이다. 그는 유난히 돌을 사랑한다. 그에게 있어 돌이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조형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가구가 지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상이다. 잘 다듬어진 묵직한 형태가 주는 미감과 안정감, 가구를 지탱하고 받치는 기능적인 면을 해내는 것이 바로 돌이라는 것.

“30년 동안 도전해온 일이에요.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굴하지 않았죠. 제 작업에 영감을 주는 것은 여행이 아닌가 합니다. 마야 문명과 잉카 문명, 원시 미술과 컨템퍼러리 아트까지 세계를 돌며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문화는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하나 기록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는 가구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스케일을 가진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후배들에게 늘 강조하듯 안 되는 일은 없고, 안 된다는 생각도 삼가야 한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확신, 미래에 대한 도전이 그를 키웠다. 아순(耳順)에 가까운 나이, 그가 여전히 생생하게 빛나고 또렷하게 살아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매디치 클래스 제3강



20세기 미술, 건축과 가구 디자인의 전개

아르누보(1890~1910) '신예술'이라는 의미로 산업혁명 이후, 변화한 라이프 스타일의 반영. 식물, 동물, 곤충의 형태를 응용한 곡선을 모티프로 살아 있는 듯한 조형을 강조했다.

초기 모더니즘(1900~1910) 모더니즘의 반석을 마련한 찰스 레니 매킨토시가 결성한 글래스고파가 곡선에서 벗어나 직선적인 면 구성, 수직적 구조미를 풀어낸 새로운 아르누보 양식 확립.

아르데코, 원시주의, 큐비즘(1910~1930) 장식 미술의 국제적 양식인 아르데코, 이집트 등 원시 미술에서 영감을 받은 원시주의, 프라하를 중심으로 활동한 체코 큐비즘 등 다양성 존재.

더 스테일과 신조형주의(1917~1931) 네덜란드에서 결성된 더 스테일(De Stijl)에 의해 새로운 조형 의지를 펼친다. 신조형주의는 몬드리안에 의해 더 스테일 예술가들이 달성하려고 했던 예술적 특징을 설명한 것. 수직과 수평선을 주로 사용했다.

구성주의와 바우하우스(1919~1933) 건축을 통해 모든 조형 예술을 통합한다는 바우하우스의 기본 목표에 따라 과학적 기술의 바탕 위에서 조형의 의미를 찾음. 구성주의는 러시아혁명 후 소비에트 아방가르드에 의해 발생한 영향력 있는 예술 운동을 말함.

유기적 모더니즘과 가구 디자인(1930~1960) 자연 소재와 자연에서 발견한 조형의 질서가 시각적·재료적 측면에서 인간의 요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믿음으로 출발했다. 감성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디자인이 더해졌다.

네오모더니즘(1960~1970) 이탈리아 특유의 문화적 배경을 산업디자인에 이용해 산업·경제적 부흥 의지를 발현한 것. 모더니즘 추상 회화에 대한 반발로 팝 아트가 등장한다.

포스트모더니즘(1980~1995) 모더니즘의 이성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출현. 모호성과 모순성에도 정당한 가치가 있다고 제안하고 인간과 환경, 인간과 사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선보였다. 뎀피스(Memphis) 디자인에서 전형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미니멀리즘, 자연주의, 개인주의(1995~2000) 모든 형태의 근본적 요소로의 환원, 재료와 형태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니멀리즘. 자연주의는 심각해지는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출발한 것이다. 개성의 표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개인주의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조형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생산 방식도 새롭게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Representative Works



'afterimage' 시리즈는 동양적인 선의 미학과 단아한 아름다움을 갖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부린 우드 아래 돌 하나를 놓아 무게를 지지하고 안정감을 준 작품, 질감이 다른 2개의 돌을 괴어놓은 것, 상아의 중앙부에 구멍을 내고 상판을 매끈하게 다듬은 것도 있다. 묵직한 나무를 편평하고 볼록하게 다듬어 탁자로 삼고 한쪽 다리를 돌로 받쳐놓은 작품은 매스감이 풍부하다.

1 afterimage, 1740×550×900(mm) **2 afterimage**, 830×370×800, ebony **3 afterimage**, 1750×540×430(mm), 1470×380×420(mm), 900×460×410(mm), hard maple, natural stone **4 zari**, 1800×500×450, black granite